기아·삼성 수출드라이브 가속도 낸다

광주·전남경제 전망

기아차 광주 1공장에서 로봇팔을 이용해 쏘울을 조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기침체 터널 끝…지역경제 3.3% 성장
자동차·가전·석유화학·철강업종 호조
소비심리 점차 개선 유통업도 '기지개'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다. 생존을 위한 힘겨운 전투를 치러왔지만 올해도 불안감이 가시질 않는다. 정부와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올 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잡고 있지만 컴컴한 침체의 골짜기를 지났다는 확신이 서질 않는다. 대외경제 여건 등 불투명한 요소들이 상존해 있다.

그나마 올해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지역 경제도 다소 풀린다는 소식이 있어 희망을 가질만 하다.

◇지역경제, 3%대 성장 속 중소기업 '흐림'=한국은행과 대부분의 연구소는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제시, 올 국내 경제가 본격적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발연구원(KDI)은 5.5%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경기예측기관 중에서 가장 높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해 올 한해는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광주·전남도 지난해와 달리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올 광주·전남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 제조업체들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환경을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곳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축소, 지원 조치의 단계적 축소가 명확한 만큼 오히려 지역 중소기업들은 올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더 치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언제쯤 풀릴까=지난해 광주·전남 부동사시장은 '개점 휴업'상태나 다름없었다. 부동산 업계는 올 해는 다소 훈풍이 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하면서도 섣부른 예단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 부동산 시장은 한 때 1만가구(2008년 11월 말 1만3천277가구)가 넘게 쌓였던 미분양 물량이 4천974가구로 줄어들었고 전남도 5천가구로 감소된 상황이다.

올 해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경기가 호전되면 주택 구매력의 증가로 이어져 미분양 해소와 신규 분양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사들의 신규 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올해 광주·전남에 9천796가구의 분양·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지난해 5천934가구에 비해 65% 증가한 규모다.

입주물량도 지난해 5천137가구보다 늘어난 7천752가구에 이른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유로 신규 분양을 미뤄왔던 민간건설사들의 분양도 잇따른다. 수완지구에서 대방건설이 1천378가구의 신규 분양을 계획하고 있고 모아주택산업은 첨단 2단지(570가구), 대성건설(광산구 소촌동 250가구), 한국종합건설(화정동 173가구) 등도 올해 신규 공급을 준비중이어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출구전략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금리 인상 등이 불가피한데다, 각종 세제 혜택 축소와 기존 미분양 물량에 신규 공급마저 증가할 경우 회복세는 더딜 것이라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홍광희 차장은 "지난해 금융위기의 직격타를 맞아 침체의 터널을 지나왔다면 올해 주택 시장은 실물 경기 회복 여부가 주택 시장의 관건"이라며 "표준형 건축비 증가와 물가 등을 고려하면 집값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공공공사 물량 등 확대가 예상됨에도 불구, 수도권 대형 건설사에 밀리면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협회가 예상한 올해 국내 건설 수주 현황은 지난해보다 3.6% 늘어나는 반면, 지난 2008년에 비해서는 3.6%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영산강 살리기 등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토목 부문 물량 증가와 달리, 민간 건설 부문 투자는 불확실성이 존재해 회복세를 예단하기 힘들다.

◇산업계 '다소 험난'=경인년 새해 산업계 기상도는 악재 속 호재 찾기가 분주할 전망이다. 삼성광주전자와 기아차 광주공장,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환율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을 업고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내는 등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올해도 세계 경기가 올해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의 주력 업종인 가전·자동차·석유화학 등의 수출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 및 인프라 확충, 인력 수급 등에 나서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의 경우 지난해에 견줘 올해 세탁기는 20% , 냉장고 15% 증산 계획을 세웠다.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상품 발주가 늘어나면서 생산 목표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도 등 신흥국 가전시장의 고성장세와 내수 시장의 회복이 가장 큰 요인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도 광주공장으로 가전 부문을 집적화하고 연 90만대 수준인 세탁기 생산량을 올해보다 최고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역 내 비중이 15.6%에 이르는 자동차 부문도 소형차 품질경쟁력 강화 및 한·EU FTA 발효 등을 이유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점쳐진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쏘울 증산과 스포티지 후속 신차 등으로 점유율 상승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원화가치 상승과 국내외 경기부양책 종료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이거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도 지난해 사상 최초로 적자를 낸 것을 올해 만회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큰 폭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이르다.

유통산업의 경우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으로 인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소비심리지수와 실물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6.7% 성장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전망했다. 다만, 대형마트의 경우 신규 출점이 여의치 않은데다, 경쟁 업태의 증가 등으로 큰 폭의 성장세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통부문 업종별 매출 및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조원, %)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09/08년	증감률 10/09년
백 화 점	19.5	21.1	22.6	8.1	7.4
대형마트	29.9	31.1	32.7	3.8	5.2
슈퍼마켓	21.5	22.6	24.4	5.0	7.9
편 의 점	5.5	6.4	7.5	15.3	17.5

■자동차산업 수급 전망

(단위:천대, %)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09/08년	증감률 10/09년
생산	3,827	3,410	3,533	-10.9	3.6
내수	1,154	1,289	1,295	11.7	0.5
수출	2,684	2,121	2,238	-21.0	5.5
수입	62	55	60	-10.7	9.0

〈자료:삼성경제연구소〉